

기고



김용호 화순소방서 소방서장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나의 소중한 가족, 혹은 평생동안 이루어낸 나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는다는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라는 단어에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난 3년간(2017~2019) 전남에서는 주택에서 1,69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7명 사망했고, 재산피해는 120억원에 달했다.

한 대와 비견될 정도로 불을 끄는 능력이 탁월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24시간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를 도와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사설

추석물가 오름세 심상찮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밥, 과자, 김치 등 가격이 줄줄이 올라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신고 18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여성 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더위 차량, 공회전 좋을까? 나쁠까?

무더위 폭염이 지속되면서 뜨거운 피약벌에 주차해둔 차량 내 공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은채 공회전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거나 일부 노후화된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해 내뿜는 매캐한 매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까지 파급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산화탄소가 250g 배출된다고 한다. 결국 차량 공회전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듯 싶다. 물론 차량 운전 전에는 워밍업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다.

요하다. 무리한 여름철 차량 공회전 자체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그렇지않아도 무더운 여름철에 무리한 차량 공회전으로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